

전남미래국제고, 베트남서 첫 유학생 면접

내년 개교 앞두고 신입생 모집 박차
우즈벡·카자흐·몽골 등에서도 추진
도교육청 현지에서 입학 홍보 활동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전남미래국제고가 베트남서 첫 유학생 면접을 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4~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남미래국제고 20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한 현지 면접에 이어 열린 '2025 하노이 한국 유학박람회'에 참가해 2027학년도 입학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베트남 현지 면접은 전남미래국제고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공식 선발 일정으로, 현지의 높은 관심 속에 한국 유학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면접 심사에서는 한국어 능력, 한국에 대한 이해도, 진로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면접 현장에는 입학 지원자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전남미래국제고 지원 동기와 학습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전남미래국제고는 설비시스템과, 스마트전기과, 건축시공과 등 3개 학과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과 직업 관련 전문 교과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남미래국제고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한 현지 면접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이를 통해 이주배경 및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과 글로벌 진로 역량을 함께 기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미래국제고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진행 중이며, 각국 현지 기관 학교 등과 협력해 2026학년도 입학자를 순차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또 국내 거주 이주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전형도 올해 1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만 전남도교육청 글로벌교육협력과장은 "전남미래국제고는 단순한 유학을 넘어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와 글로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다. 이번 면접 심사와 박람회 홍보를 통해 한국 유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제교육 협력과 유학생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김이수(왼쪽에서 세번째) 조선대학교법인 이사장과 김춘성(7 네번째) 조선대총장 등이 최근 조선대학교 3개 대학 총괄 총장제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조선대·조선간호대, 통·폐합신청서 최종 제출

‘국내 3위’ 규모 간호 인재 양성
승인시 2027년부터 신입생 모집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와 조선간호대학교(총장 박명희)가 최근 통·폐합승인신청서를 교육부에 최종 제출했다.

교육부 승인이 완료되면 조선대학교는 2027년 3월부터 통합대학 신입생을 모집하며, 완전한 통합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양 대학은 2020년부터 통합 논의를 시작해 ▲2023년 통합 업무협약 체결 ▲대학통합추진위원회 결성 ▲교직원 설명회 및 설문조사 ▲통합추진·실무위원회 운영 ▲이사회 심의 및 내부 의사결정 ▲교육부 제출을 위한 수차례 보완 검토 등 5년 여에 걸쳐 신중하고 체계적인 통합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연계, 조직 개편, 학생 복지 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거치며 내실 있는 실행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조선대는 통합을 통해 국내 3위 규모의 간호인

력 양성 기반을 확보하고, 간호·보건 전문지식과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교육 체계를 통해 웰에이징 시대의 글로벌 보건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조선대 김춘성 총장은 "이번 통합은 조선대학교의 '웰에이징 글로벌대학' 추진 전략과 연계한 구조 혁신의 핵심 단계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보건 의료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대학과 지역,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간호대 박명희 총장은 "조선대와 조선간호대의 통합은 대학 구성원과 지역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통합을 통해 양 대학의 발전뿐 아니라, 디지털 AI간호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력양성으로 보건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대학은 교육부의 승인 이후에도 학생·교직원·동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며, 통합 이후의 교육과정, 행정조직, 학생 지원체계 등 실질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교육청, 5개 자치구에 ‘이음센터’ 구축 본격 운영

시민협치진흥원, 북구 이음센터 개소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인재 양성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이하광주시민협치진흥원)이 광주지역 5개 자치체에 '온마을이음학교 이음센터'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시민협치진흥원은 최근 북구평생학습관에서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구 광주시민협치진흥원장, 광주 북구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마을이음학교 북구 이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5개 자치구 중 마지막으로 남구청에 '온마을이음학교 남구 이음센터'를 열었다.

온마을이음학교는마을교육 협력기반을 구축해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 운영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으로 특히 '온마을이음학교 이음센터'는 광주시민협치진흥원과 5개 자치구가 협력해 촘촘한 지역 생태계를 구성하여 지역인재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광산구 이음센터의 개소에 이어 동구, 서구 이음센터가 2024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올해 북구와 남구 이음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광주시민협치진흥원은 광산구와 함께 AI·드론, 창의 설계코딩 등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미래기술학교'를 운영했으며, 동구와는 조선대의 다양한 학과를 체험하는 '미래대



광주시민협치진흥원은 최근 북구평생학습관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과 북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온마을이음학교 북구 이음센터'를 개소식을 개최했다.

학'을 선보였다. 서구와 함께 경험과 체험 위주의 열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북구 이음센터는 남도향 토음식박물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말바우시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남구는 '꿈과 끼, 창의력을 키우는 남구학교'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민협치진흥원은 2024년 3월, 광주 5개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모든 자치구에 이음센터가 개소하면서 학생들이 지역에서 특색있

는 교육과정을 체험하고, 배운 것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교육자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교육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음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기관을 잇는 촘촘한 지역교육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광주학생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역사·전통, 과학·미래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 협의체' 가동

주민·전문가·행정기관 참여 지역혁신 기반 조성 협력 논의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RISE사업단은 최근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 제1차 협의체'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발굴 및 리빙랩 과제 추진을 위한 공동 실행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 협의체'는 광주대 RISE사업단을 중심으로 ▲광주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송원대학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남구 주민자치회 및 전문 교수진 등 총 10여 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역 내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 추진 계획과 실행 전략이 공유됐으며, 주민·전문가·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캠퍼스 기반 리빙랩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문제 발굴·실증·정책 제안까지 연계되는 구조가 논의됐다. 특히 ▲도시재생 ▲반려동물과 생활환경 ▲정

년 유입 및 주거환경 ▲스마트시티와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공모전 및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 말까지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결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민, 대학, 행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은 생활 밀착형 문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정책과 가능한 성과 도출과 지역 확산에 협력하겠다"라고 뜻을 모았다.

광주대 노선식 RISE사업단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리빙랩 실행부터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지역 주민, 전문가, 학생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